

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1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0
V. 종합의견	12

I. 일반개황

면적	2,717천 km ²	G D P	2,160억 달러 (2014년)
인구	1,714만 명 (2014년)	1 인 당 GDP	12,400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대통령 중심제	통화단위	Tenge
대외정책	친러시아, 대 서방 우호관계	환율 (달러당)	179.2 (2014년)

-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, 천연가스, 석탄, 우라늄, 크롬, 금, 철광석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1991년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나자르바예프(Nazarbayev)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.
- 원유·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으며, 에너지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(EEU: Eurasian Economic Union)에 참여하며,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·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제성장률	7.5	5.0	6.0	4.3	1.5
재정수지 / GDP	6.0	4.5	5.0	1.8	-3.2
소비자물가상승률	8.3	5.1	5.8	6.7	6.3

자료: IMF

□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1.5% 전망

○ 국제유가의 대폭 하락과 주요 유전의 생산 지연이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.

- 2014년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98.9 달러(브렌트유 기준)였으나, 2015년에는 배럴당 55.9달러(10월까지 평균)로 크게 하락하였음.

- 2012년부터 생산 예정이었던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의 생산 지연으로 원유생산 규모가 감소한 것도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었음.

○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산업에서는 자원에너지 산업(2015년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.2% 하락), 운송업(2015년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7.4% 하락)등의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.

□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전환

○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, 2015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-3.2%로 적자 전환되었음.

○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임.

□ 소비자물가는 텅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아지고 있으며,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

- 2014년과 2015년 달러 대비 텅게화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해외로부터의 수입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.
 - 2013년 5.8%에서 2014년 6.7%로 상승했으며, 2015년에는 6.3%, 2016년에는 8.6%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.
- 2015년 10월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를 12%에서 16%로 인상하였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

-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,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, 재정수입,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.
 - 카자흐스탄은 원유, 천연가스 및 광물이 수출의 80%를 차지하는 자원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임. 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, 소비재 등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.

□ 금융 부문의 높은 부실채권 비율이 경제 발전에 장애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어려움으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최근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, 전체 대출액의 20%를 상회하고 있음.
 - 2013년 말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 대출액의 31.7%를 기록하였으며, 최근 다소 비율이 낮아짐.

- 전체 부실채권에서 무역과 서비스 부문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%에 달하며, 부문별로는 건설 부문의 부실채권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대출의 40%가 부실채권인 것으로 IMF는 평가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에너지 자원의 개발 잠재력과 국부펀드 활용을 통한 성장가능성

- 카자흐스탄은 원유,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(석탄, 우라늄, 크롬, 아연 등)이 매우 풍부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에너지 부문 발전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.
- 2014년 기준 원유는 300억 배럴 매장에 일일 170만 배럴 생산, 천연가스는 1.5조 m³ 매장에 연 193억 m³ 생산을 기록하였음.
- 주요 유전들로는 카라차가낙(Karachaganak), 텡기즈(Tengiz) 및 카샤간(Kashagan)이 있음
 - 최대 유전은 2000년에 발견된 카샤간 유전으로 추정매장량만 380억 배럴에 달하며, 2013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한 달 만에 가스 누출사고로 생산이 중단되어 2016년 생산 재개 예정임.
- 국부펀드(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) 자금을 활용하여 산업구조 다변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음.
 - 국부펀드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점차 산업다변화와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.
 -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, 2015년 10월 기준 국부펀드 규모는 639억 달러에 달함.

□ 유라시아 경제연합(EEU) 출범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

- 카자흐스탄은 러시아, 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(EEU)의 창립 국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.

- 기존의 3개국에 아르메니아(2014년 10월), 키르기즈(2015년 5월) 가입으로 역내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, 향후 다른 CIS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EEU를 통한 역내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.

다. 정책성과

□ 장기적인 사회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, 정책성과는 미진

- 2012년 12월 기존 카자흐스탄 2030 계획을 대체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인 카자흐스탄 2050(Kazakhstan-2050)을 발표함.
 - 동 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발전, 산업다변화 등 경제 부문과 교육,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 특히 농업 생산량 확대와 전통에너지 이외의 태양력,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산업다변화를 위해 10개의 경제특구 운영

- 2001년 아스타나에 처음으로 경제특구가 설립된 후, 2011년까지 에너지, IT, 섬유,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설립됨.
 - 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, 재산세, 부가가치세, 관세 면제 혜택과 행정 서비스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.

□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해온 WTO 가입에 성공

-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6년 1월 WTO 가입을 신청하였으며, 20여년 만에 2015년 7월 16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됨. 이에 향후 관세·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시장개방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.
 - 2018년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지분 상한 49%가 폐지되고, 2020년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설립 허용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며, 2018년부터 신차 관세율이 27.9%에서 13.3%로 인하되는 등 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.

- 아울러 WTO 가입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 관련 제도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점차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 ^f
경 상 수 지	10,199	1,641	927	4,643	-5,911
경 상 수 지 / G D P	5.4	0.5	0.4	2.2	-3.0
상 품 수 지	44,844	38,145	34,792	36,699	13,726
수 출	85,194	86,931	85,596	80,281	45,368
수 입	40,350	48,786	50,803	43,583	31,642
외 환 보 유 액	25,174	22,132	19,127	21,525	21,123
총 외 채 잔 액	125,200	136,900	149,900	157,100	168,900
총외채잔액/GDP	66.6	64.6	71.2	79.8	78.6
D S R	23.4	27.4	34.4	48.3	54.9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,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국내수요 위축으로 수입도 감소

-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, 천연가스, 광물 등이며,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함.

- 2015년의 수출액은 2014년의 절반에 불과한 45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,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2014년의 1/3인 137억 달러 흑자, 경상수지는 GDP 대비 3% 적자가 전망됨.

□ 총외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GDP 및 총수출 규모 대비 총외채 비중은 상승 추세

-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3년 67.3%에서 2014년에는 71.2%, 2015년에는 79.8%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.
-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역시 2013년 161.2%에서 2014년 178.6%, 2015년 268.6%로 높아지고 있음.

□ 텡게화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 규모 감소

- 2015년 10월의 외환보유액은 연초에 비해 5.2% 하락하였으며, 이는 텡게화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매각에 따른 것임.
 - 9~10월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환율안정을 위해 약 50억 달러를 매각하였으나, 11월 5일 정부의 외환시장 불개입 선언이후 하루 사이에 텡게화 환율은 5% 평가절하됨.
- 석유수출 소득을 통해 조성된 국부펀드(National Oil Fund) 규모도 크게 감소하여 연초에 비해 12.78% 하락한 63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.¹⁾

□ 지속적인 환율 상승과 변동환율제 도입

- 카자흐스탄은 2014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텡게화를 평가절하하고 있으며, 201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짐.
 - 연초부터 11월말까지 텡게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68% 평가절하되었음.
 - 이러한 텡게화 평가절하는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의한 것임.
-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5년 8월 20일 기존의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음.
 - 기존에 중앙은행은 공식환율을 미 달러당 185±3텡게로 유지하는 고정환율제를 운영하였으나, 향후 금융시장 및 물가안정에 위협이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.
- 변동환율제 채택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텡게화 평가절하 압력을 받아온 데 따른 것임.

1) National Bank of Kazakhstan. www.nationalbank.kz

-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전망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신흥국에서의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.
- 8월 20일 변동환율제 시행 발표 이후, 하루 동안 미 달러 대비 텡게화 환율은 23% 상승함.
- 향후에도 환율이 점차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증가 효과가 있을 전망되나, 이에 따라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5년 4월 대통령 선거 결과 나자르바예프 現대통령이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

-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에 있으며, 지난 2015년 대선에서 97.7%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여 2020년까지 집권하게 됨.
- 대통령의 장녀인 다리가 나자르바예프가 9월 부총리에 임명되어, 향후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의회에서는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 보유

- 현재 2012년 1월 총선에 따라 여당인 Nur Otan당이 107석 중 83석을 차지하고 있음.
- 의석을 획득한 2개 야당들도 친정부 성향이 강하여 의회 내 여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이 부재하며, 2017년 총선까지 특별한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.

2. 사회안정

- 실업률 상승이 전망되며, 탱게화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상승,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잠재
 - 실업률은 높지 않으나, 향후 경제여건 악화로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, 실질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.
 - 실업률은 2012년 5.3%, 2013년 5.2%, 2014년 5.0%로 하락하였으며, 2015년에도 5.0%로 추정되나, 2016년에는 5.8%, 2017년에는 5.7%로 점차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.
 -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5년 9월 실질임금이 2014년 9월에 비해 1.7%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 - 2014년 2월에는 알마티 시내 중심가에서 탱게화 평가절하, 물가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으며,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유사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
3. 국제관계

- 중국과 에너지, 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강화
 -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은 카자흐스탄 교역의 14.2%를 차지하여, 러시아(16.7%) 다음으로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임.
 - 중국은 2013년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의 지분 8.33%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, 2009년 완공된 송유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.
 -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, 2015년 3월 양국은 236억 달러에 달하는 33건의 계약을 체결했음. 이 계약들은 운송, 광물, 에너지,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.

□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(EEU)에 적극 참여

-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(EEU)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.
- 현재 EEU 회원국은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아르메니아, 키르기스이며, 역내 시장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 전망

- 2015년 10월 일본 아베 총리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에너지, 인프라 등에 7억 달러 규모의 투자 가능성을 밝혔으며, 11월에는 아스타나에서 23개 일본 대기업이 카자흐스탄-일본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하였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이며,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

- 2015년 6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3.4억 달러, 중장기 31.9억 달러 등 35.3억 달러이며, 이 가운데 3.4%인 중장기 1.1억 달러가 연체 중이고, 그 중에서 1,86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.

2. 국제시장 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2015년 2월 S&P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의 BBB+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하였음. 이는 텅게화의 대폭 평가절하, 수출규모 감소, 러시아 경기침체 영향의 지속 가능성 등에 따른 것임.

<표 4>

한·카자흐스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2	2013	2014	주요 품목
수 출	885	1,075	907	자동차, 합성수지, 영상기기 등
수 입	308	249	561	원유, 우라늄, 합금철선철, 고철 등
교역규모	1,193	1,324	1,468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(2015년 10월 말 누계): 240건, 25.1억 달러

- 2015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투자누계액은 25.1억 달러로,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22위 해외투자 상대국임.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 28.5%, 건설업 17%, 부동산 임대업(10.6%) 및 광업(8.7%) 부문임.

V. 종합의견

-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14년의 4.3%에서 1.5%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.
-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은행부문의 높은 부실채권 비중 등이 경제의 취약성으로 지적되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개의 경제특구를 설립하였고, 2050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음.
- 2015년 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여 정치적으로 견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며, 최근 장녀가 부총리로 임명되어 향후 후계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2015년 말 기준 5.0%로 낮은 수준이나, 외채상환비율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말에는 54.9%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어 외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.

조영관 선임연구원(☎02-6255-5759)

E-mail: ykj@koreaexim.go.kr